

자연친화형 야간관광 1번지 '무주'

군, 전북자치도 2025년 야간관광진흥도시 공모 선정... 도비 9000만원 확보

무주군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한 '2025년 야간관광진흥도시' 공모에 선정돼 도비 9천만 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무주군은 청정지역 이미지를 적극 활용한 야간관광 콘텐츠 상설화 운영 계획으로 야간관광진흥도시에 선정됐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반딧불이의 고장 무주의 특화된 매력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반딧불이 신비 탐사를 비롯한 나뭇잎과 산골영화제 등의 야간관광 콘텐츠를 활용해 관광 동선을 확장하고 지역경제 파급효과 또한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간관광진흥도시는 지역의 차별화된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야간관광의 매력을 발굴·강화하는 동시에 자생력을 갖는 도시로, "대한민국 자연친화형 야간관광 1번지"를 표방하는 무



무주반딧불이축제 반딧불이 신비탐사



안성 두문마을을 낚아쫓게

주군은 '청정한 자연 속 고요한 빛의 향연, 그리고 머뭇'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반딧불이 투어·체험(콘셉트 은하수)과 △나뭇잎이 상설화(콘셉트 별뿔뿔), △체류형 산골영화제(콘셉트 오토리)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반딧불이 투어·체험 프로그램은 외국인 관광객과 농촌 체험과의 연계 등으로 확대하고 나뭇잎은 반딧불축제 및 나뭇잎이축제 등 특정 기간 및 장소 외에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골영화제는 버스킹과 숙박(캠핑,

리조트)를 결합한 관광상품으로 운영한다.

추진력을 더하기 위해 무주군은 무주군관광협의회 등 주요 기관들과 군청, 한국역사문화연구소 등 민간업체, 자율방범대 등 단체들과 야간관광협

의회를 구성해 사업추진에 주력하는 한편, 지역 상인들을 포함한 군민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관광수용대세 개선 등 교육 진행과 함께 자원봉사자를 위한 교육 진행과 함께 자원봉사자 홍보활동 등도 주도해 갈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전북자치도 도로정비평가 '1위'

겨울철 빠른 제설작업 추진 등 최우수 평가

장수군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한 '2024년도 도로정비평가'에서 14개 시·군 중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도로정비평가는 매년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포장도 보수, 배수시설 정비,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와 도로표지 정비, 시설물 보수·보강 상태 등 도로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총 11가지 항목을 춘·추계로 나눠 서류 및 현장평가로 이뤄진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매년 봄·가을에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로정비 평가를 실시해 그 중 도로관리 상태가 우수한



지자체를 시 단위와 군 단위별 각각 최우수, 우수 1곳씩 선정하고 있다.

장수군은 겨울철 설해 대책에서 빠른 제설작업 추진으로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없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한 점과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도로 이용률이 높은 도로에 대한 신속

정비 등에서 탁월한 평가를 받았다.

또한 군은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이용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부분이 이번 최우수 평가를 받는 데 핵심적인 기여를 했다.

최훈식 군수는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올해 전북 14개 시·군 중 최우수라는 영예를 안았다"며 "앞으로도 겨울철에 도로 제설작업을 철저히 추진해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통행 차량 안전확보 등 최고 수준의 도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원예특작 분야 농자재 지원사업 신청 접수

무주군이 2025년 원예특작 분야 농자재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지역 내 필지에서 지원 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로 신청은 1월 17일까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하면 된다.

지원 분야는 총 8개로 △천마 자재 지원을 비롯해 △포도(머루), 블루베

리 재배시설 지원, △딸기 상토 지원, △복숭아 농자재 지원, △복분자 자재 지원, △인삼 농자재 지원, △고랭지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 지원, △흑미수박 육묘 지원 등이다.

특히 천마 자재(원목) 지원 단가가 톤당 12만 원으로 2만 원 증가했으며 포도(머루), 블루베리 재배시설도 톤당 7백 원으로 지원 단가를 1백 원 인

상했다. 인삼 농자재(해가림시설)는 톤당 1,940원을 지원하며 고랭지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 약제는 2중에서 8중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이은창 과장은 "농가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과수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일부 사업의 지원 내용을 개정하기도 했다"며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자 농가 소득증대를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몽골 내각관광부 각료, 진안 방문

치유·의료 관광 교류... 1박 2일 머물며 진안홍삼스파 등 체험

몽골 내각관광부 각료 및 대학 총장 등 유력 관계자들이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1박 2일간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을 방문하여 관내 우수 웰니스 관광지인 홍삼스파 등 치유·의료 관광 교류 활동을 실시했다.

지난 3월 아이마주 주지사 등 방문, 5월 우문고비주 달랑자기도 시장 등이 방문한 데 이어 몽골 VIP 방문으로는 올해만 세 번째다.

이번 방문은 지난 5월 진안군과 대자연병원이 체결한 바 있는 치유·의료 관광 업무협약에 따라 몽골 등 해외 유력 VIP 등을 대상으로 미아산 탐사와 진안홍삼스파 등 군의 우수 웰니스 관광지 방문·체험을 통한 상호협력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번 일정은 당초 몽골 내각관광부장관이 직접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국내 정세 불안정성 등을 이유로 차관급 이하 12명이 방문해 대자연병원 건강검진 등 의료관광 후 진안군을 방문해 선을 위한 교육 진행과 함께 자원봉사자 홍보활동 등도 주도해 갈 방침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춘성 진안군수는 "우리 진안군은 지역의 풍부한 웰니스 관광자원과 진안형 크나이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역 장기체류 의료 관광객 증대 및 해외의 목적 관광객 유치에 도모하고 있다"며, "홍삼스파를 활용해 다양한 힐링·치유 콘텐츠 개발 및 활성화를 통해 생태건강 치유도시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군은 이외에도 치유·의료 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을 통한 웰니스 거점 관광지 대산지로서 외국어 수용성 개선을 통한 외래 관광객 유치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홍삼스파를 지원해왔고, 지난 5월에는 유명 토크쇼 프로그램 토크쇼를 개최하는 등 세계적인 목적형 스파인 진안 홍삼스파를 활용한 치유 관광 프로그램들을 추진해왔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분리배출 우수마을 7개 지역 선정

장수군은 '청정고장, 깨끗한 장수' 만들기 사업의 일환인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평가에서 '2024년 분리배출 우수마을' 7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분리배출 우수마을은 현장평가와 자체노력도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해 올 한해 분리배출을 가장 적극적으로 실천한 우수마을을 선정해 주민의 분리배출 의욕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마을 주도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평가 결과 총 218개 마을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득한 반안면 국포마을을 비롯한 장수를 구명마을, 산서면 초장마을, 장계면 중동마을, 천현면 삼장마



을, 계남면 하늘소마을, 계북면 양악마을이 올해 우수마을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군은 이번엔 선정된 마을에 대해 우수마을 현판과 인센티브를 마을에 전달했으며 내년도에는 사업예산을 증액해 각 마을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군정발전 유공자 6명에 감사패 수여

진안군은 26일 군수실에서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유공자 6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날 감사패는 △TBN전북교통방송, △미아산사진연구협회 정길웅 씨, △진안군청 여도선수단 최영남 씨, △스케이워터엔터테인먼트(주) 김동영 씨 △부부락 허은정 씨, (주)더저널 박병영 씨에

수여했다. 전춘성 군수는 "지역사회에 숭선수범하는 유공자들의 모습은 모두에게 많은 귀감이 될 것"이라며, "군민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해주신 유공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2025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 개최

진안군은 26일 실과소장 및 각 팀장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결산과 더불어 2025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회를 가졌다.

올해 진행한 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25년 목표와 추진전략을 점검하는 이날 보고회에 선 공약, 역점, 신규사업 등의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2024년 주요 성과로는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선도지역 지정, 로컬푸드 진안점 개장, 진안군가족센터 준공, 일자리센터를 통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원도심 기능회복을 위한 지혜의숲 도시관, 문화예술회관 건립 착수, 영농철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배치를 통한 일손부족 문제 해결 등을 밝혔다.

특히 2025년도 계획으로는 '생태건강치유도시' 구현을 위한 분야별 추진사업에 대해 활발하게 의견을 나눴다.

군은 학전지구 복합개발, 월당지구 600세대 규모 주택단지 조성, 용담호 예로도피아 프로젝트, 진안고원 산림치유원과 연계한 주민주도 상생사업,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 조성, 양수발전소 유치 등 우리군이 가진 강점과 우수한 자연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추진을 통해 지역발전의 성장 기반을 한층 더 높여갈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로컬푸드 안전성 인증제 슬로건 공모전 수상작 발표

진안군은 '진안로컬푸드 안전성 인증제 슬로건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했다.

지난 11월부터 12월 3일까지 진행된 공모전에는 총 78건의 슬로건이 접수됐으며, 사전검토와 1·2차 심사 및 최종 심사를 거쳐 최우수작을 선정했다.

최우수작은 밭고 밭을 수 있는 진안로컬푸드의 우수성을 가득 담은 「진안(鎭安), '진심'으로 키우고 '인심'으로 채우다, 라는 슬로건이 최종으로 선정됐으며, 최종 선정자에게는 진안고원행복상품권 50만원이 수여된다.

군은 이번엔 선정된 슬로건을 로컬푸드 홍보 자료 및 홍보물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